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7.1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주말있는 삶

03 종합

사랑에서 _ 가지 않은 길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신임 법률자문변호사에 이본석 변호사 위촉
광주건축사회, 2019년 하계 임원야유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해외(일본) 건축문화탐방 성료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19년 확대이사회 개최
전남건축사회, 우수건축자재기업들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전라남도, 도내 공무원과 건축사 등 대상 계약심사부서 워크숍 개최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라북도,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진행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 김제소방서에 200만 원 상당 소화 물품기증
전북 전주대 건축학과, '군산, 공간을 공유하다' 주제로 건축전 개최

10 설계경기

광양시 보건소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11 종합뉴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합동발대식
2019년 상반기 건축문화사랑 워크숍 개최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세상사는 느낌 _ 짧았던 만남, 오래갈 추억
한 편의 시 _ 안부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해당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주말있는 삶



강미현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건축사
ygcocoon@gmail.com

- 2004. 6. - 현재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 저서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2014 / 효형출판)

일상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공간에 사회적 관심이 높다. 전에는 아름답고 멋진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회자되었다면 지금은 건축공간이 담아내는 가치의 구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건축 담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축인들이 등장했고, 건축 직종이 멋진 직업군으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는 안다. 이런 현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건축 설계 일을 하는 청년들의 SNS를 보면 하나같이 눈 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내며, 일터를 노동 착취의 현장이라 이야기한다. 대다수의 우리 건축설계자들은 건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자부심보다 생계형 직업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생계형 설계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아니 열심히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만 해도 몇 년 동안 눈 비비며 새벽에 출근하고 주말 없이 일했다. 마치 개미처럼. 그럼에도 회사경제는 유지되지 못해 은행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건축사가 이런 상황이니 직원들의 삶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설계사무소의 고질적 관행인 박봉 그리고 야근문화는 꿈 있는 건축학도들이 더 이상 설계자로서의 이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몇몇 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직원은 물론 대표자도 열정페이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 상황에서 건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자는 이야기야말로 넌센스다.

나는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우리 직업군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발주처의 갑질 문화가 주요 원인이라 보고 있다. 최장허용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용역의 설계 기간 산정은 주말 없이 죽을힘을 다해 일을 해야 지체 보상을 겨우 물지 않을 그런 기간으로 발주된다.(나의 경우 지난해 주 98시간 근무했다.) 그러면 용역대가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고용인원을 늘려 서로 일을 분담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웃프게도 발주처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용역 대가에 산정하지 않은 일들도 당연한 듯 지시하며 창의적인 건축설계와 공짜노동을 동의어로 작동시킨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동영 의원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건축사법을 대표 발의했고, 2017년 12월 26일 건축사법이 개정되었다. 이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법이 개정되며 나는 우리 설계자들도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나쁜 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하다.

밤낮없이 일해도 불가능한 용역 기간, 대가 없이 공짜로 강요된 과업지시서, 심지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대 업무에 대해서도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이를 응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여과될 필요도 없다는 듯 버젓이 과업지시서에 담겨 입찰이 나오는 상황이다.

계약 전 부당한 과업지시서를 고쳐줄 것을 요청하면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다'며 '그런 요구를 할 거면 처음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입찰이 되면 관에 인사부터 오는 것이 예의이지 않냐'며 '어떻게 처음 발주처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과업지시서를 수정해달라는 건지 불쾌하다'는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공공건축시장은 갑질로 뚝뚝 뭉친 과업지시서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용역대가 산정이라는 비정상이 당연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발주처들의 행태에 설계자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한 지 오래다.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된 설계 감리의 품질을 기대한다면 그거야말로 코미디다. 세대가 변하면 달라질 것인가 기다렸지만 관의 젊은 세대 역시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현장을 보니 과연 공공건축에서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미래를, 건축사의 미래를, 우리 사무소의 미래를, 나 개인의 미래를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암울하다.

관의 고질적인 갑질도 문제지만 이미 개정된 건축사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건축계도 적당히 침묵하며 관의 눈치를 본다. 발주처와 마찰이 생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을'인 설계자다. 그걸 너무도 잘 알기에 침묵으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관행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하는 법을 잊은 것인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계약방식에서 건축사사무소는 값싼 노동력과 대량의 노동시간 그리고 많은 수주가 구축되어야 겨우 유지되는 상황이다. 우리 건축청년들의 청춘을 담보로 열정페이에 기대 우리 건축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공공기관에게 돈 달라고 시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법적 용역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우리 후배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용역 기간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설계자가 워커홀릭의 삶을 강요받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사실 노동시간과 노동 대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축사에게 당연한 듯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며 마치 우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도구화시켜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도 넘쳐난다. 건축설계란 사회변화와 트렌드를 분석하고 특화전략을 세워 컨셉을 결정한다. 더불어 구조,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술적 내용과 결합하여 건축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법률의 상관관계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도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긴 프로세스와 섬세한 감성이 바탕이 된 고도로 기술적인 일인데도 말이다.

부디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설계자들이 최선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되길 바란다. 공정한 용역대가, 주말 있는 용역 기간 그리고 전문가로서 업무 결정권.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좋은 건축도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첫걸음이다.

신속하게!

대출도 실험이 어부바 해드립니다

실험에 가면, 금융생활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대출 서비스

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사업장 구입자금대출,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타행 포함) 신용대출까지

아파트담보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신용대출

광주건축시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사랑에서 _ 신여섯 번째

가지 않은 길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다. 아니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6개월만 되돌아봐도 수많은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도달하기 위해 순간순간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다. 선택을 위한 고민, 선택 후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받아들임.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위한 준비의 연속이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을 대표하는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B는 Birth이고, D는 Death이다. 그 사이 C는 Choice다.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다. 압축된 삶의 표현이다. 태어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죽음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선택은 나의 몫이다. 삶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자의든 타의든 내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간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오늘 선택의 쌓임이 내일의 나를 있게 할 것이다.

//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 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 //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선가 /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 숲속에 둘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다. 선택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늘 상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한다. 자신의 함량 범위 내에서 결국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남는다. 두 길을 선택에서 동시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인간의 한계다. 한길밖에 갈 수 없는 것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위한 밑거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럿 크기의 그릇에, 평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쌓아 놓았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마음그릇, 생각그릇, 말그릇, 행동그릇 등등에... 나를 되돌아본다. 아직 그릇의 크기나 쌓인 양이 미천하다는 것을 지난 나의 말과 행동에서 느낀다. 삶에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는 선택을 위해 내 몸속 그릇도 키우고, 그곳에 좋은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담아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잘 꺼내 써야겠다.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7월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일부 개정·시행 알림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57호)		
공포일자	2018. 12. 31.	시행일자	2019. 7. 1.
주요내용	○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 확대(제61조의3) (현행)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개정)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법령명	「범죄예방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 향후 공포 시 재알림 예정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제3조) (현행) 의무대상 :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권장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개정) 의무대상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제11조)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오피스텔 (현행)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권장 (개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오피스텔 기준 강화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제10조)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 (개정)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 -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신설) -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 설치(신설) -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신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강동영
-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정영환
- 전담기자: 광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양병범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500,000원
(주)마이다사이티 300,000원
법무법인 법가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녹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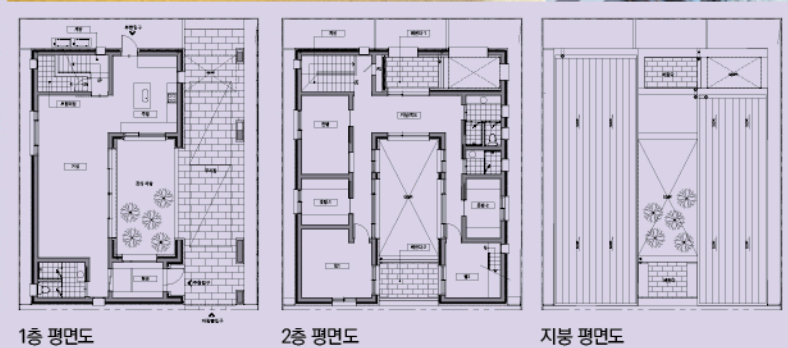
김정선 건축사 & 이원주 / 엘에이앤(LAN)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31-1 / Tel. 062-372-1602

사진 | 김성희 / 사진짓기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58번길 23 / 대지면적 : 252.70㎡ / 건축면적 : 141.94㎡ / 연면적 : 215.42㎡
 건폐율 : 56.17% / 용적률 : 85.25%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어렸을 적 단독주택에 살았던 건축주는 아파트의 획일적인 공간 제약 때문에 늘 단독주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10주년을 맞아 온 가족을 위한 선물로 주택을 짓게 되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 도심지에 너무 개방적이지 않으면서 저녁 시간을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건축주 생활 스타일을 고려하여 외부형태는 증정을 품은 □자 형태 집의 큰 틀을 바탕으로 거실, 주방, 마당, 주차장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너무 도드라지지 않으나 세월의 흔적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벽돌의 정갈한 외관의 모습으로 제안하였다.

내부는 건축주의 강한 개성이 있는 가구, 그림, 오브제 등의 배경이 되도록 최대한 단순화된 인테리어 디테일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7월	23일(화) 14:00~16:00	전문	BF인증제도와 인증기준의 이해	백종근 인증실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23일(화) 16:00~18:00	전문	토질조사 및 사고사례 대처방안	허신영 토질기술사		2시간	30,000원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신임 법률자문변호사에 이본석 변호사 위촉

지난 6월 17일 이사회에서 승인... 6월 24일 협약체결, 7월 1일부터 1년 임기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6월 24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회장실에서 신임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승인된 이본석 법률사무소 이본석 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6월 17일 제6회 이사회에서 참석 임원의 전원 동의로 이본석 변호사를

신임 법률자문변호사로 승인받았다.

7월 1일부터 1년간 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을 맡은 이본석 변호사는 영광 해룡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과 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부동산개발협회(KODA) 광주지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무토건 자문변호사, 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광주건축사회는 2011년부터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처리업무를 지원하고, 법적 분쟁 시 시회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2019년 하계 임원야유회 개최

지난 6월 19일 경북 고령군 일원 탐방... 시회 발전을 위한 단합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19일 경북 고령군 일원에서 '2019년 하계 임원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진을 비롯한 역대 회장, 대의원, 각 위원회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경북 고령군의 대가야 문화권과 우륵박물관 등을 답사하며 시회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와 함께 상호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현구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뭉쳐진 힘을 우리 시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해외(일본) 건축문화탐방 성료

참가자 20여 명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동경과 요코하마 도시재생지 등 탐방



광주건축사회가 주관한 2019년 해외 건축문화탐방이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탐방에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 회원들과 대학교수, 일반인 등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동경의 도시재생 대표사례인 시부

야역, 히비야, 에비스, 긴자6 복합쇼핑몰 및 긴자 6초메, 롯폰기힐즈, 니혼바시, 오모테산도와 요코하마의 야마시다공원 옆 산업무역센터 및 카자나와 현민홀, 차이나타운을 견학했다.

강현구 회장은 "이번 탐방자들은 광주시 도시발전의 주요 과제인 도시재생과 연계 되도록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건축사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우리 광주시의 건축·도시문화 발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심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축 이야기 '류담포럼' 개최

지난 6월 11일 금수장호텔에서... (주)지에이 건축 박화수 건축사의 건축이야기로



나무심는 건축인(대표 신정철 건축사)과 남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류담포럼'이 지난 6월 11일 광주 동구 금수장호텔에서 개최됐다.

류담포럼은 건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건축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으로 제1회 강연은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박화수 건축사의 건축이야기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 전문가와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하였고, 박화수 건축사는 이날 '자연이 있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경험담으로 들려주었다.

또 강연 이후 참석자들과 건축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나무심는 건축인 대표 신정철 건축사는 "건축인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후학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류담포럼에 지역 건축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가 지원

지난 7월 1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 구인신청 건축사사무소 10여 개소 참가



광주건축사회는 회원사의 직원 부족을 해결하고자 북구새일센터와 협약을 맺고 경력단절여성 20여 명에 대해 국비로 건축실무교육(세움터, 법규, 구조 등) 및 전산교육(CAD 등)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 교육생들의 수료일을 앞두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축사사무소와 매칭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적극 지원에 나섰다.

7월 1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행사장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구인신청 건축사사무소 10여 개소가 참가할 수 있도록 도력했으며, 실습이 확정된 자 외 교육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건축사무소와 매칭도 진행되었다.

이날 채용 의사를 밝힌 건축사사무소는 훈련생 간 실습 연계와 실습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면접을 통해 실습생을 직접 선발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7월 중순까지 사무국으로 연락(062-521-0025~6)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철저 요청

광주건축사회, 회원사들에 시공 및 감리업무를 철저하게 기해줄 것을 공지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7월 2일 광주건축사회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 합동으로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 실시 결과 130개 건축 현장에서 총 19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이중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관리감독 소홀 28건 등 건축자재의 생산에서 시험, 시공,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건축 및 시공, 감리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건축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납품되어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 및 감리업무를 철저하게 기해줄 것을 요청함과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설치사진)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건축사회는 해당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하여 관련 사항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다.

광주 회원동정

- 결혼
 - 김혜원 사원 / 광주건축사회 / 본인 결혼 - 06월 29일(토)
- 부고
 - 김충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D&D / 빙모상 - 06월 11일(화)
 - 이영문 건축사 / 이영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7월 05일(금)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회덕헌 懷德軒

장진영 건축사 /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중앙로 16, 2층 202호 / Tel. 061-331-5670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698-5 / 대지면적 : 556.1㎡ / 건축면적, 연면적 : 170.98㎡ (안채 : 160㎡)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한식목구조



전남건축사회, 2019년 확대이사회(임원 및 역대회장, 대의원 대상) 개최

지난 6월 20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도회 현안 업무 전반에 대한 고견 청취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6월 20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2층 알림홀에서 임원 및 역대회장,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확대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확대 이사회에서는 전라남도 우수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공동발전 업무협약식일정 보고와 농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회의 관련 사항 보고, 감사원 제보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치 결과 안내(지역건축사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 개최 안내, 회비 장기 미납자 납부 안내문 발송 및 징계 절차 안내,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 인력 풀 구성 및 추가 모집 안내, 감리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예정 등에 대한 보고 및 도회 현안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건축사회, 우수건축자재기업들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6월 20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기업에 선정된 10개사와...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6월 20일 보성다비치콘도 대회의실에서 전남의 우수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건축자재기업들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건축사회는 해당 기업들의 제품을 회원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와 함께 기업들의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들은 전남건



축사회에서 시행하는 총회 또는 건축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 및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알루미늄 창호 전문기업 경원알미늄과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ADD웰빙테크, 방근·방수 신기술기업 한양엔티, 까르미테크·에어로사이딩플러스 등 아웃도어 내외장재 보현석재, 친환경 차열·단열페인트 온새미로, 각방조절 IoT 시스템분배기 상신, 폴테크 미세먼지 방충망 대상테크를, 창문 단열재 스타빌엔지니어링, 내외장 패널 조달기업 KSC산업, 금속 내외장재 시공 라인강건산업 등 10개사이다. 해당 기업들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건축자재기업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은 “건축사에게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성능 및 명칭 등 표기 의무화’에 따른 건축사의 자재 선택 권한·책임이 부여된 만큼 전남지역도 우수한 자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전남 건축사들이 협동·단결해 건축자재 설계 안정화와 우수한 자재를 활성화해 전남지역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건축자재협의회 유명우 회장은 “건축사들이 선정한 우수제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설계·반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상생발전에 앞장서는 전남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같지만 다른카드, 아키디자인



작업효율
3배 향상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찾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단순반복 출력, PDF 변환 ▶ 1Click!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 카드 기능 지원
리슘, 3d Party 기능 기본 탑재



MIDAS ARCHIDESIGN

Premium

PC 무제한 + 기능 무제한 + 업데이트 무제한

출시기념 프로모션

-60만원(1년) → 50만원(1년)

+ 3개월 추가제공



상담문의
이벤트 상세

1899-9260
www.midasCAD.com



「단지의 편리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잘 활용하고 살아왔지만, 규격화된 공동주택이 주는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다. 한옥을 보면 그냥 편해진다. 불편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된장국을 맛볼 때 속이 풀 어지듯 그냥 내 몸속에 유전자가 한옥에 반응을 한다거나 할까?」 건축주가 설계를 맡기며 건넨 “왜 한옥인가?”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이며,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항릉 한옥 마을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미 오십여 채 한옥이 들어서서 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기존 마을에 터를 잡아 들어가는 입장이나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한옥다운 맛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스레 ‘단아함’이라는 콘셉트를 건축주와 공유하게 되었고, 설계 과정 중 골치 아픈 선택의 순간마다 유용한 길잡이가 되었다.

회덕현은 그 자체가 멋스럽도록 장식이나 조각을 하지 않았으며 주변 한옥보다 키를 낮추고 대문과 돌담을 둘러 오래전부터 마을에 있었던 집처럼 보이게 하였다. 하지만 나무를 사용한 구조인 만큼 기단을 높이고 처마를 충분히 빼 목재를 보호하고 집의 위용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배치는 전통 가옥에서와같이 대문을 지나 마당을 매개로 사랑과 안채로 이어지는 구성을 대지 생김새에 따라 전개하였다. 집 가운데 바닥을 올리고 벽을 없앤 누마루는 집의 깊이를 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 마당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 마당에 접한 내부 공간과 조화를 이룬다. 대문을 들어섰을 때 보이는 전망 좋은 다이나믹 공간은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더 돌아 들어와 거실 앞마당은 중정 형태로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채를 나누어 배치한 전통 가옥처럼 집안 어디서나 본인의 집을 바라볼 수 있고, 따뜻한 목재의 질감과 유연한 처마를 누리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전라남도, 도내 공무원과 건축사 등 대상 계약심사부서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13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건축사회원 20여 명 참석



전라남도는 지난 6월 13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제암홀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과 건축사, 출연기관·용역·시공·자재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부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전남건축사회원 20여 명을 포함해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계약심사 기준 및 심사 방향 설명과 도내생산 자재·신기술 등 소개, 용역 원가 및 공사 원가 관련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계약원가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여러 분야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이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추진 고삐 당긴다

지난 6월 10일, 문화재청 방문해 지원 요청... 5년간 근대건축물 보수·정비될 것

전남 목포시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 고삐를 당긴다. 이를 위해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6월 10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정재숙 청장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거리 경관 정비 등 시급한 사항의 추진을 건의하였다.

목포시 원도심 일대는 100여 년 전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목포만의 경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내 대표 근대역사 공간으로 지난해 8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 공간 단위 문화재(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등록되었다.

2019년부터 5년간 이 일대는 거리 경관을 회복하고 노후화된 근대건축물 보수·정비를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는 첫발을 내딛는 단계로 시범사업의 방향과 기본토대가 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근대건축자산 매입, 등록문화재 보수 등 역사공간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외부 투기 세력 방지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 안내판 및 홍보배너 설치, 경관을 훼손시키는 적치물을 제거 및 화분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거리 정비에 힘쓰고 있다.

또 ‘우리동네가이드’를 운영하여 근대역사 공간 모니터링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리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옛 거리의 경관을 복원하게 되며 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한 빈집갤러리를 오픈하여 방문객

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근대역사 공간의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지난해 성공리에 개최한 ‘문화재 야행(夜行)’을 개최하여 탐방객들에게 목포만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전선 지중화, 인도정비,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역사 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목포시는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해 문화재청에 과업 승인요청 중이며, 적극활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자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 비용 지원한다

도내에서 유일...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대상, 사회 취약계층도 지원

전남 광양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과 사회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주택 외에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비 지원과 사회 취약계층(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와 최대 5백만 원의 지붕 개량비가 지원된다.

특히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 이하 최대 336만 원, 168㎡ 초과~500㎡ 이하 500만 원, 500㎡ 초과~1,000㎡ 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 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 환경정책팀(061-797-2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회원동정

- 퇴회
 - 강인수 건축사 / 세원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이성진 건축사 / 포커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8-1, 2층
- 결혼
 - 설혜순 건축사 / 미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07월 06일(토)
- 부고
 - 윤정환 건축사 / 신흥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6월 08일(토)

전라북도,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진행

사용승인부문, 학생부문, 건축사진부문 공모,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접수



전라북도는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학생 부문, 건축사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도내에 준공된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대상이며, 학생 부문은 건축계획과 기술계획으로 출품하여 대학생의 창의적 작품을 시상하게 되며, 건축사진 부문은 도내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축사진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 및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전북건축문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품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상과 각 단체장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를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청 1층 로비와 전시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 김제소방서에 200만 원 상당 소화 물품기증

지난 6월 27일 김제소방서에서...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 주택에 보급 요청



전북건축사회 김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주용)는 지난 6월 27일 김제소방서를 통해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 주택에 보급해 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기증했다.

기증 물품은 김제소방서에서 시청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순차적으로 보급 및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정주용 김제지역건축사회장은 "김제시민의 안전기반 확충과 화재 인명피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북 전주대 건축학과, '군산, 공간을 공유하다' 주제로 건축전 개최

7월 10일까지 전북 예술회관에서... 이길환 회장, 우수 학생에서 작품상 시상도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 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건축 전시회를 개최했다. 7월 3일 오후 개막식

이 마련됐고 연세대 최문규 교수의 초청 강연도 이어졌다.

'군산, 공간을 공유하다'라는 전시 주제로, 남학생 19명과 여학생 14명 등 33명의 졸업 설계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학생들은 전라북도 군산을 '주제 도시'로 선정하고, 수십 번의 방문과 현장·문헌 조사를 통해 군산의 도시적, 건축적, 사회적 문제를 발굴했다.

도시 공동화라는 단어가 익숙한 군산에서 새로운 주거복합체의 상상과 활력 있는 도시를 상상하며 경제와 산업에 주목, 다양한 구성원을 보며 계층 간 문제에 접근, 오랜 역사와 자연을 감안한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서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은 '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다'라는 작품을 출품한 연기영 학생에게 우수작품상을 수여 하기도 했다.

전북대,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심화반) 교육생 모집

오는 7월 12일까지 접수... 15명 내외로 한옥설계 심화 과정반 선발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에서는 전문 건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한옥설계이론, 한옥설계실습, 특강, 답사, 지역봉사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 면접을 거쳐 15명 내외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고 선발된 교육생은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 및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교내 공지(검색어-한옥) 및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옥설계 교육을 실시하여 18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4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만성동 다솜이네 단독주택

유성환 건축사 / 예순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로 43
Tel. 063-226-4939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 1269-13 / 대지면적 : 283.70㎡ / 건축면적 : 113.34㎡ / 연면적 : 142.56㎡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점토벽돌, 아이큐브, 리얼링크

전북 전주시, 공공건축 현장포럼 개최, 우수 공공건축 사례 답사

지난 6월 19일 공공건축 2차 포럼 개최... 관계 공무원 및 지역건축사 등 40명 참석

전북 전주시는 지난 6월 19일 공공건축 관련 부서 직원 10여 명과 지역 건축사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일원에서 공공건축 2차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서울 호수공원, 북서울 꿈의 숲, 한내 지혜의 숲, 구산동 도서관마을 등 서울시의 우수 공공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이들 공공건축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서서울 호수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을 설계한 전주시 최신헌 총괄조정건축가(씨토포스 대표), 한내 지혜의 숲을 설계한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의 최수훈 실장,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설계한 플로 건축사사무소 최재원 건축사로부터 해당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고민과 해결 과정, 우수한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청취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1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전주시 공공건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주시 공공건축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향후 진행될 4차례의 포럼을 통해 공공건축 공모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지역건축문화와 신진건축가의 육성 등 전주시의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 전주형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 위촉해

6월 28일에 국내 주거지재생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진도시건축 조준배 본부장을...



전북 전주시는 지난 6월 28일, 주거지재생 정책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지 재생과 주거복지를 통합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준배 유진도시건축 본부장을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준배 총괄계획가는 그간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과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처장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주거지 재생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해 향후 추진되는 전주형 주거지재생 기획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주거재생 총괄계획가는 주 1일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역할은 전주시 주거지재생 비전 제시와 마스터플랜 형태의 기본구상 및 통합적 계획

수립, 주거지재생 자문 등을 맡게 된다. 또,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 간 추진되는 주거지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및 조율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총괄계획가 위촉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최고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 팽창보다는 압축적인 도시 관리를 통한 구도심 주거지 보존, 기존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주도의 점진적인 재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 익산시, '빛의 도시' 조성 위해 건축물 등에 경관조명 설치 추진

공공디자인과 경관심의에서 경관조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 강화할 계획...

전북 익산시는 지난 6월 25일, 활기찬 도시조성을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민간 건축물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해 '아름다운 빛과 밤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이 건설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한 '빛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과 경관심의에서는 경관조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매월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의 위원회에 7월부터는 조명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연출조명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빛의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경관조명 연출대상은 공공건축물, 전망대, 도로 구조물인 교량, 고가구조물, 주요 테마 거리 등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 공원 등 도심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을 상징하고 고유의 개성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조명 연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회원동성

• 퇴회

- 임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당

• 변경(소재지)

- 안경호 건축사 / (주)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28

• 결혼

- 백종남 건축사 / 아도건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06월 29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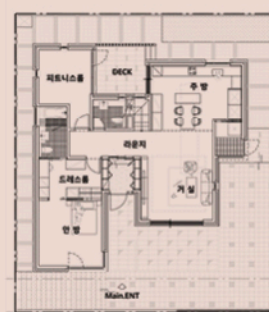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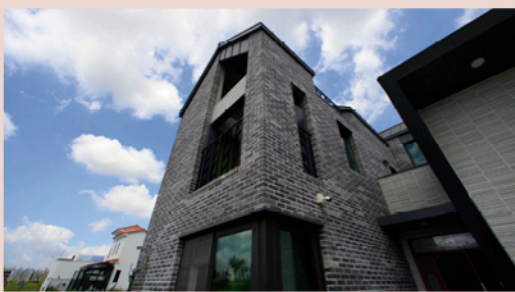
• 부고

- 장맹식 건축사 / 동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6월 09일(일)

-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6월 10일(월)

- 서남근 건축사 / 선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6월 15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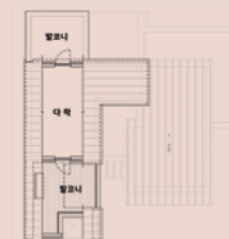
- 정태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화신 / 모친상 - 07월 02일(화)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 및 지붕 평면도

만성동 법조타운 내 주거전용지로 황방산과 기지재 수변공원이 인접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택지에 오랜 시간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새롭게 고향에 정착하는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건축주의 장성한 아들과 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배치계획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있었지만, 결국 2층은 자녀들이 국내 거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였고, 1층을 평상시 부부의 주거공간으로 구성했다. 주거 전용 택지였지만 인접 토지와 여유공간이 협소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요철과 이형 블럭을 이용해 투시형 차폐 시설로 외부 공간을 구성하였고, 건축물 뒤편과 연계한 출입 동선은 조그만 텃밭과 연결시켜 도심 속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광양시 보건소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기존의 협소하고 분산된 각종 보건의로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심사위원 : 보건소장(광양시), 건축과장(광양시), 노승범(한양대학교), 유우상(전남대학교), 김경원(조선대학교), 최만진(경상대학교), 남해경(전북대학교), 박종경(가야 건축사사무소), 김한열(한일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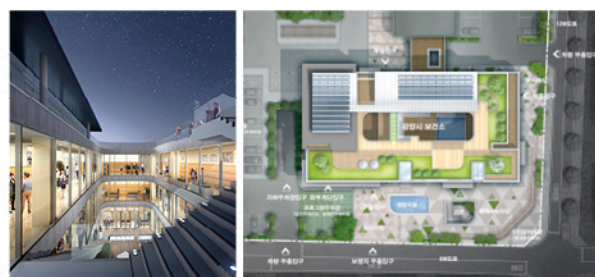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대지면적 : 16,418.0㎡
- 연 면 적 : 5,928.0㎡(+10% 범위 내)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용 도 : 업무시설(보건소)
- 공 사 비 : 14,780,000천 원

당선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로운 건축사사무소
 장 려 : (주)도무수유 건축사사무소
 장 려 : 건축사사무소 옥탑헌재
 * 자료 미제출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정영법 건축사
 로운 건축사사무소



장려작
 하경원 건축사
 (주)도무수유 건축사사무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합동발대식 국가 재난발생 시 시·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건축사가 적극 나선다

- 지난 7월 8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 합동발대식 가저



합동발대식 단체 기념사진



결의문 낭독



광주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전남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전북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와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조연준),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7월 8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 합동발대식'을 가졌다.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손상된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인명 구호 활동을 실시하며, 평상시에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보강 방안을 자문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봉사 조직이다.

발대식은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지원단 조직은 대한건축사협회에 '중앙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두고,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건축사 36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 박진만 부회장, 중앙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김재록 단장 그리고 호남권 재난안전지원단 위원으로 선발된 40여 명의 건축사가 참석했다.

강현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발대식이 건축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초석이 됨과 동시에 호남권 시·도민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축 전문 자격인'으로 대국민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연준 회장도 "중앙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에 이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족으로 직접적인 재난발생 현장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만 부회장은 "건축사로서 이번과 같은 적극적인 대민 활동이 건축사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일반 시·도민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 시·도 대표들의 개회사에 이어 석정훈 회장의 축사, 위원 위촉장 전달 및 2019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홍보에 이어 기념 단체 사진 촬영 후 합동발대식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3개 시·도 건축사 재난안전 지원단 명단이다.

■ 광주건축사회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단 장	강현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위 원	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명
	이경행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최경양	한샘 건축사사무소
	유승희	원 건축사사무소
	조휴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최경락	라일 건축사사무소
	최환석	라온 건축사사무소
	정태호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김창룡	내외 건축사사무소
	길종일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장동원	동원 건축사사무소
	문창식	우리 건축사사무소
	김민호	너울 건축사사무소
	노진욱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김옥재	건축사사무소 지음
	임채열	나성 건축사사무소
	김용남	웅 건축사사무소
	정재한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이수철	건축사사무소 다스	

■ 전남건축사회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단 장	조연준	건축사사무소 창조
위 원	김용균	유로 건축사사무소
	김성수	한양 건축사사무소
	정정진	건축사사무소 정원
	이용규	건축사사무소 이레
	백종민	라인 건축사사무소
	양경승	해룡 건축사사무소
	전진호	진 건축사사무소
	서광남	누리 건축사사무소
	이길배	건축사사무소 도영
	오재덕	오 건축사사무소
	김한얼	(주)한얼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건용	정민 건축사사무소
	문성식	AUD 건축사사무소
	신승민	SM 건축사사무소
	류윤석	건축사사무소 비움
	김병원	상록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단 장	이길환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위 원	박진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김종용	건원 건축사사무소
	전병갑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강정용	삼호설계 건축사사무소
	김경태	엠.에스 건축사사무소
	김상수	한솔 건축사사무소
	김정태	김정태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바우 건축사사무소
	반진호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서일석	건축사사무소 예담
	안홍준	(유)샘 건축사사무소
	유기호	건축사사무소 뿌리
	이성열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이태원	에인 건축사사무소
	장종우	(주)장인 건축사사무소
	정주용	가림 건축사사무소
	최현정	온고을 건축사사무소
	홍영식	하늘 건축사사무소
	소태호	건축사사무소 태호건축
김유천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2019년 상반기 건축문화사랑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21일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일원에서... 건축을 탐방 및 합동회의 진행



본지 건축문화사랑 2019년 상반기 워크숍이 지난 6월 21일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 3개 시·도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학생기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인 전북 익산의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탐방하였으며, 전주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는 창간 10주년 행사 관련 및 합본 제작 관련 회의, 신임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날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창간 10주년 행사 및 합본 제작 관련 회의에서는 기념식 및 강연회를 11월 12일 광주에서 진행키로 하였으며, 합본발간에 긍정적인 협의와 함께 광주, 전남, 전북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데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책 소개 _ 임현정 건축사 /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국립목포대학교 겸임교수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조유미 글 / 화가울 그림 / 허밍버드 / 2017. 09. 22.



강렬한 태양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블루베리, 복숭아로 계절의 향기를 가득 담은 민트 빛 프루츠 에디션. 요즘 열풍인 흑당 버블티 한잔과 담아 봐도 너무 예쁜 책 속의 감성 돋는 일러스트와 글이 잔잔히 그려진 “지친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공감과 진한 위로, 힐링이 되어줄”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감성 포텐 에세이집을 소개한다.

우리의 일상은 나보다 남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과 주위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의 마법 같은 주문을 마치 자상하게 나를 케어해 주는 따듯한 충고와 따뜻한 조언의 글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짚어 다잡아 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공감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해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네 가지 part의 마음의 주문은 화려한 단어가 아닌 소소한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뿐인 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주문과도 같다. 인생의 깊은 우울감에 빠져본 우리와 인생에서 지나온 날들이 후회되는 우리. 지금의 모습이 불안하고 다가올 날들이 걱정되는 우리. 그래서 위로의 말들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소소한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주문을 통한 자신의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본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우리에게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라는 마음의 주문을.. 사랑이 힘들고 서툴러 힘겨운 우리에게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라는 주문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날에는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라는 주문을.. 문득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에는 “나는 매일 잘되고 있다”라는 주문을”

작가가 알려준 마음의 주문 네 가지 중 순간순간 필요한 마음의 주문을 꺼내어 사용하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들 속에서 이런 사소한 일상의 긍정적 주문이 모여 소소한 행복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리셋 버튼을 눌러라.
절대 한심한 행동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기회는 또 찾아온다.

길을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중에서

세상사는 느낌 _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짧았던 만남, 오래갈 추억

나는 대학에서 ‘터큰’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 건축에 대한 것과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건축이라는 학문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지난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우리는 전남 무안에 위치한 백제고등학교 학생들과 인연이 닿아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모여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없이 본인들이 직접 수업 일정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어본다는 것이 나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그 학생들에게 건축학과 학생의 삶이 어떤지 학생 때 하면 좋은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아직 건축이라는 학문을 잘 모르고 가치관을 논할 나이가 아니지만, 그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활동하면서 내가 어떤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설계 프로젝트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였는데 이번 경험이 아니었다면 과거의 경험과 자료에만 의지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것 같다.

성적에 고민이 많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이지만, 자신의 흥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학생들과의 만남은 비록 하루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학생들과 나, 우리 모두에게 오래 남을 추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안부

아침이면 금방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면 주말 되고
봄이면 어느새 겨울 돌아오는
그렇게 삶이 빨리 지나갈지라도
사는날까지 열심히 살아 봅시다

같은 푸른 하늘 아래
어느 도시 어느 동네 살지라도
당신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게 바빠서
그리운 얼굴 볼수는 없어도
보고픈 마음 만나지 못해도
가슴속에서 빙빙 도는 마음

멀리 떨어져 볼수는 없어도
이렇게 핸드폰에 눈길 돌려
카톡을 통해서라도 안부를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유월
말은 일 충실히 수행하며
건강하게 오래 오래
안부 전하며 살아 갑시다.



가설계의 바른용어는 기획설계입니다

건축상담과 기획설계는 무료입니다

건축사의 상담과 기획설계는 건축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